

1.

필자가 '역사적 인물' 고하 송진우를 처음 만난 것은 1970년대 초 새내기 대학생 시절이었다. <교양 국사> 강좌에서 독립운동사 연구의 선구자인 은사 박영석 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로부터 국내에서 3.1운동을 처음으로 모의한 중앙학교 3인방이 송진우·김성수·현상운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 후 역사학도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동아일보 사장으로 국내 언론·문화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다.



3.1운동 전후 중앙학교를 이끈 지도부(김성수, 최두선, 송진우, 현상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역사책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3.1운동의 진원지가 중국 상하이 의 신한청년당이란 연구 성과가 공문화되자, 이때부터 중앙학교의 송진우 역할론에서 신한청년당의 여운형 역할론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아울러 무장투쟁만이 독립운동의 '절대 선'으로 인정받는 풍조 속에 교육·언론·문화운동은 부르주아지 민족운동으로 폄훼되고, 실력양성운동으로 구별되어 독립운동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3.1운동에는 두 가지 성격이 복합되어 있었다. 하나는 남부노소, 빈부귀천, 종교와 직업을 초월한 민족 대단결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농민·노동자 등의 기층 민중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위 운동을 확산시켰다는 측면이다. 이 때문에 우파에서는 민족 대단결을 중시하면서, 민족대표 33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띠었다. 반면에 좌파에서는 3.1운동을 계급투쟁으로 보고 농민·노동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3.1운동은 실패한 독립운동으로, 민족대표 33인은 투항주의자로 비판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여운형 중심으로 결성된 건국준비위원회가 9월 6일 박헌영 등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이에 송진우를 비롯한 민족주의 우파 인사들은 다음 날인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개최하고, 3.1운동으로 구원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임정봉대론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해방 공간에는 새 국가 수립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좌·우 세력이 충돌하면서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 김구의 암살로 이어지는 비극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이 같은 해방 공간에서의 혼란은 1980년대 들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광풍을 몰고 오면서 재연되었다. 이들은 해방 직후의 민족 세력에 대해 송진우·김성수의 토착 세력, 여운형을 중심한 사회주

의 세력, 박헌영을 중심한 공산주의 세력, 이승만과 안창호 계열의 기독교 세력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 새 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송진우가 여운형보다 앞서서 총독부로부터 치안권 이양을 제안 받고 거절하였던 사실은 부정되었으며, 이후 여운형이 주도한 건국준비위원회에 불참한 이유도 새 정부 수립의 주도권을 빼앗긴데 대한 열등감과 이기심에서 역사적 대의를 저버린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였다. 이와 함께 송진우의 이름 앞에는 ‘극우주의자’라는 접두어를 붙여버렸다.



한국사학계의 지형을 바꾼 <해방 전후사의 인식>

왜, 그랬을까? 1980년대 이후 좌파 세력의 가치관과 역사관에 큰 영향을 끼친 이 책은 해방 전후사를 ‘살아 있는 현재’로 읽어내야 한다는 대 명제아래 우리 역사의 지향점을 ‘분단 극복’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 분단사관에 따라서 미군정과의 협력을 통해 공산주의 세력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새 국가 건설을 주장한 송진우는 극우주의자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송진우의 사상과 행적을 살펴보면 ‘극우’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그가 1932년에 쓴 <자유권과 생존권>에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적 민주주의까지 강조하였고, 이와 함께 기간산업의 국유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 개혁, 사형제 폐지 등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박헌영 중심의 조선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결성한 국민대회준비회도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모든 정파 인사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다. 이처럼 송진우는 극우주의자가 아니라, 극단적인 좌우 대립의 외중에도 자유-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균형감을 잃지 않고 국민 대통합을 추구한 합리주의자였다.

또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고하 송진우(1945.12.30.), 몽양 여운형(1947.7.19.), 설산 장덕수(1947.12.2.), 백범 김구(1949.6.12.)로 이어지는 비극적 암살사건의 출발점이 되는 송진우의 암살 원인을 두고도, 송진우가 신탁통치를 찬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검증한 사료에 의하면, 그는 반탁 시위를 벌이는 시위대를 미군 헌병이 강압적으로 해산시키자 미군정장관 아놀드 소장을 찾아가서 “반탁 주장은 우리 국민의 의사이며 국민운동인데, 미군정이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항의하였다.

그뿐 아니라 주한 소련영사관을 찾아가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소련군의 철수를 주장하였다. 당시 “짚신감발을 하고 죽창 들고 미 군정정을 축출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자”고 주장하던 지도자들 사이에서 송진우야말로 해박한 국제정세를 바탕으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애쓴 진정한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1991년 역사문제연구소가 기획한 <한국 현대사의 라이벌> 강좌에서 서중석은 「안재홍과 송진우」를 비교하면서, “안재홍과 여운형은 끝까지 일제와 싸운 세력이고, 송진우로 대표되는 세력은 황국신민화운동이나 친일 활동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지주, 대부르주아 토착세력으로서 힘은 있었지만 민중들을 설득시

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2007년 인촌 김성수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히자, 평생을 동고동락한 송진우도 친일파였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갖가지 오해가 덧붙여졌다.



서대문형무소에 복역 중인 송진우(1926)

그러나 송진우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었다. 1941년 12월 8일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황국신민화정책을 강요하자 대다수 지도층 인사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전락했지만,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그는 총독부의 강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친일단체 가입은 물론 친일 논설이나 강연, 인터뷰조차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송진우는 일제강점기 동안 네 차례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세 차례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으며, 도합 27개월의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또 백범 김구의 노모인 곽낙원과 성재 이시영의 두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백야 김좌진의 독립군부대에 군자금을 지원한 일화도 사실로 검증이 된다.

한 마디로 송진우는 일평생을 독립을 향한 집념을 불태운 민족주의자이자 애국지사다. 문제는 그의 행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후학들의 불찰이었다. 이로 인해 송진우는 잃어버린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2.

이에 필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현대사 인식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1946년 7월 미 군정청이 시행한 <미래 한국 통치구조>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본주의(14%), 사회주의(70%), 공산주의(7%), 모른다(8%)로 당시의 국민의식이 압도적으로 친 사회주의 또는 친 공산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정치인은 여론에 동조하였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한 지도자는 미국의 이승만과 국내의 송진우뿐이었다.

이미 1925년에 발표한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명 논설에서 공산주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과 소련이 대결하게 될 것을 예견하였던 그는 여운형이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자 곧장 공산주의국가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하고, 미군정과 협력하면서 이승만과 김구의 국내 안착을 돕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시대 상황과 자유민주주의자 송진우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해방 전후사를 '살아 있는 현재'로 읽어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역사를 왜곡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일례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는 해방 직전 총독부가 송진우를 찾아와 치안권 이양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증언이 고의로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증거로 <<국제타임즈>>의 정무총감 엔도의 회견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전문을 살펴보면 뉘앙스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무정부 상태를 우려하여 여 씨에게 치안 대책을 위촉하였을 뿐, 정권 이양 교섭은 하지 않았다. 송 씨에게는 전쟁이 끝나기 전 여러 번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기 때문에 그와는 다시 교섭하지 않았다. - 《국제타임스》 (1957.8.13.)

위의 내용은 송진우에게는 8월 15일 이전에 여러 번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던 날 여운형에게 치안대책을 위촉하였다는 말이지, 송진우에게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앞부분만 인용하고, 뒷부분은 삭제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석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민당의 행적을 두고도 송진우가 이끌던 때와 그의 사후 김성수가 이끌던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송진우와 한민당은 극우세력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이처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만약 여운형과 안재홍 등이 결성한 건국준비위원회에 송진우가 협력했다라면, 남북 분단도 안 되고 통일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을 것”이란 가정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가가 사실(史實)을 외면하고 이념적으로 해석하는 역사의 정치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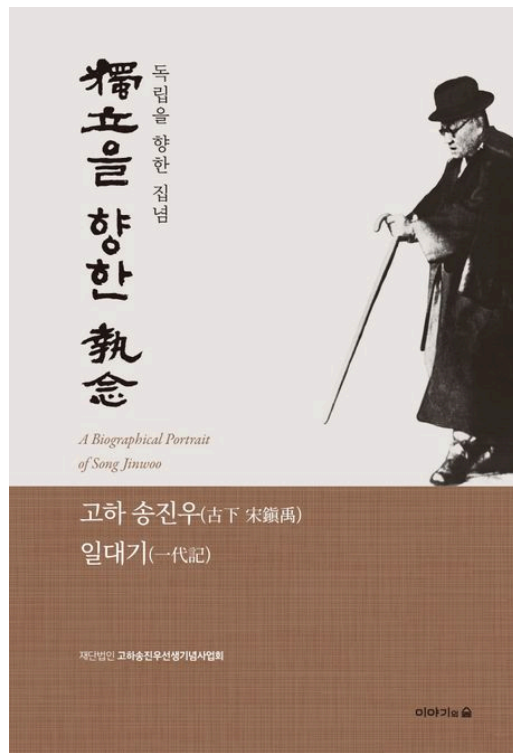
필자의 신간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

3.

이에 학창시절에 민족주의사학을 배우며 느낀 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분단 극복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캠퍼스의 연구실을 떠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통일운동에 종사한 탓으로, 학계의 말석에 자리하게 된 필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적 인물 송진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에 관한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에만 1,427건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분량이다. 그러나 송진우에 관한 논저는 10여 편에 불과하고 특히 그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필자가 이 책을 내는 이유이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독립을 향한 집념」은 간추린 고하 평전이다. 2022년 2월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는 고하의 전기인 《독립을 향한 집념》을 발간하였다. 이에 필자는 757쪽에 달하는 책의 내용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간추려서 고증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였다.



고하 송진우의 일대기 <독립을 향한 집념>

2부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는 민족운동가인 송진우의 행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평가한 논문이다. 기존의 전기에 없는 각주와 참고 문헌을 통해 그의 민족운동을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고찰하였다.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주목할 것은, 3.1운동의 주역으로서 송진우의 역할을 재조명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승만의 3.1운동 기획설과 송진우와의 관련성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의 출발점이자 종착지로서의 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두 번째, 언론경영인으로서 송진우의 역량을 재평가하였다. 특히 1924년 동아일보 임시 주총 사태를 언론개혁으로 인식하던 종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일보를 장악하여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선전매체로 이용하려고 홍명희를 내세운 공산주의자들과 이에 맞서 3.1운동의 영웅 이승훈을 앞세워 경영권을 지키려던 민족주의자들 간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송진우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앞으로 이 논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토론을 기대한다.

세 번째,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과 단군 선양사업에 대한 고증을 통해 문화운동가로서 송진우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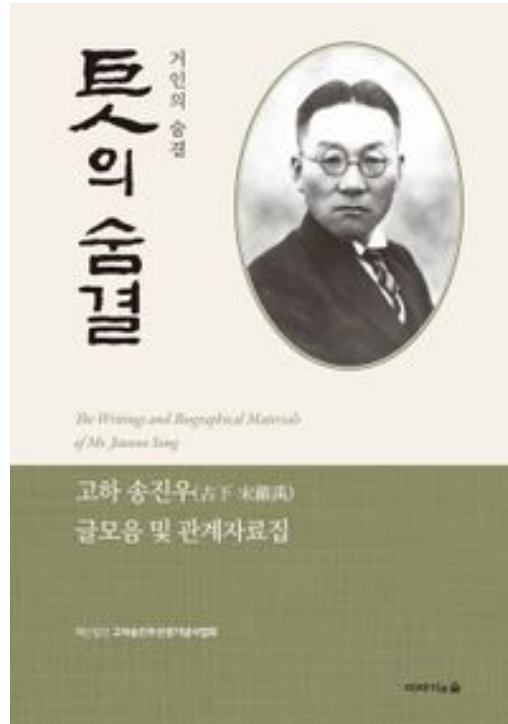
네 번째, 베를린올림픽 당시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인한 동아일보 사장 퇴진 이후의 행적과 김구·김좌진 등 독립운동가들과의 숨겨진 일화를 검증하여 독립운동가 송진우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섯 번째, 해방 전후 총독부의 치안권 이양과 관련한 논쟁과 함께 해방 공간에서 송진우가 활동한 127일간의 행적을 자유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관점에서 조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민족사학자로 명망 높던 위당 정인보가 "이충무공 때는 무능하고 부패했을망정 정부가 있었지만, 정부도 없고 엄혹한 감시와 압박의 일제시대에 오로지 혼자 동아일보를 짊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 몸 바친 인물은 고하밖에 없다."라고 극찬하였던, 독립운동가 송진우의 공적을 바르게 평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송진우가 꿈꾸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그가 암살을 당한 이유와 정치적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3부 「거인의 숨결」은 2023년 8월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가 송진우의 글과 관련 자료를 모아서 《거인의 숨결》을 발행했는데, 1128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자료집에 누락된 자료를 발굴하여 수록한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송진우의 글 4편과 관련 자료 8편 등 12편이다. 송진우가 쓴 글은 이중 과세(過歲)에 대한 논설, 교우록, 단편소설, 인터뷰 기사 등인데,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1935년 《삼천리》에 게재한 「교우록」이다. 이 글에는 그의 교우관계와 그 배경을 밝히고 있어서, 근·현대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1928년 《별건곤》에 발표한 단편소설 「괴상한 산가」는 그의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책의 성과 중 하나이다.



고하 송진우의 문집 《거인의 숨결》

또 역사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던 해방 전후 ‘총독부의 치안 협조 요청’문제와 관련하여 김준연·강영수 등 동아일보 관계자의 증언과 함께 그동안 역사학계에서 다룬 적이 없는 “FRUS 1945.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를 수록하였다. 이 자료는 1945년 9월 25일자의 해방 전후 국내 정세와 총독부의 동향을 수록한 기사 가운데, 조선총독부가 여운형을 만나기 전에 송진우에게 치안권 이양문제를 논의했다는 기사와 함께 12월 17일 송진우가 주한 소련영사관을 방문하여 폴리안스키(Polianski) 영사에게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소련군의 철수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마지막으로 《월간 조선》 2023년 12월호에 실린 고하의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와 필자가 대담한 기사를 《월간 조선》의 동의를 받고 전재하였다. 송진우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에는 초판에 없던 〈연표〉와 〈찾아보기〉를 덧붙이게 되었다.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의 역사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책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1)>로 출판하기로 결정해주었다. 필자가 지난 2022년에 펴낸 《끝나야 할 역사전쟁》에서 주장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Korea)’의 취지에 공감한 결정이었다. 앞으로 이승만, 김구, 김규식, 여운형, 김성수, 조소앙, 신익희, 조봉암 등의 다양한 인물에 대한 연구와 저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저술하는 동안 많은 도움말을 주신 송상현 교수님과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이민원 박사, 고하에 관한 대담 기사를 전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월간 조선>,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기꺼이 이 책의 출판을 감당해 준 도서출판 동문선 신성대 대표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여의도 연구실에서 저자 김 형 석

이 글은 지난 5월 8일 출간된 필자의 《고하 송진우와 민족운동》(재판)의 서문임을 밝힌다.